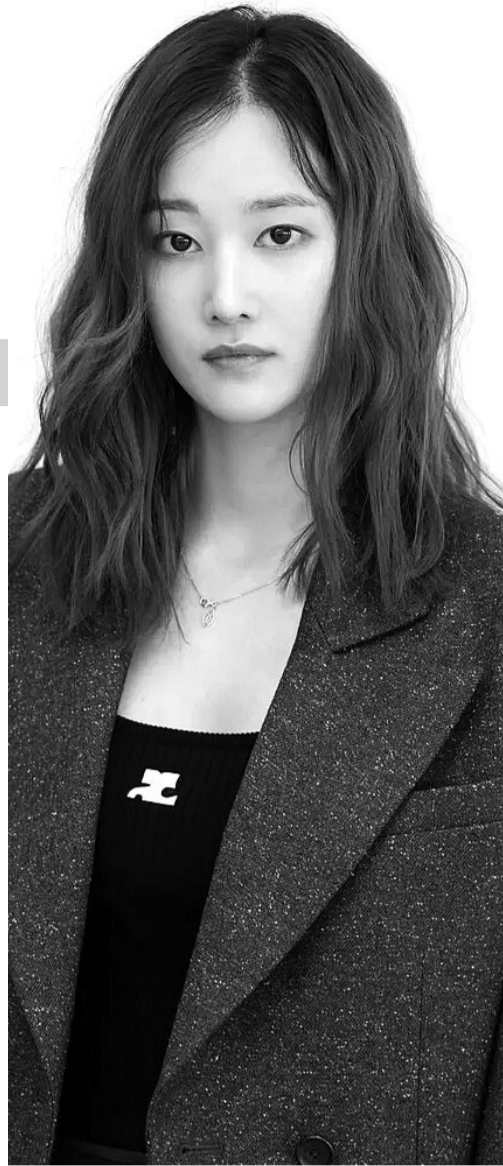


“두번째 선 ‘칸’ 무대 여전히 떨리던걸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몸값' 전종서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 후보...한국 드라마 두번째 영화 '버닝'으로 2018년 영화제 참석...“K콘텐츠 해외 관심 느껴”

“촬영을 끊지 않고 쪽 이어가는 원테크 촬영법, VR(가상현실)처럼 시청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우리 작품의 매력이지. 실질적인 도전이 통했던 것 같아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몸값'으로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회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을 찾은 배우 전종서(사진)와 전진규, 장률(16일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몸값'은 이충현 감독의 동명 단편영화를 원작으로 한 6부작 드라마로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 후보에 올랐다. 제1회 때 후보에 올랐던 tvN '마더' 이후 한국 드라마의 두 번째 경쟁 부문 진출이다.

전진규는 칸에 입성한 소감을 묻자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장률 역시 “오기 전에 작품을 한 번 더 봤다”며 뿌듯해했다.

영화 '버닝' (2018)으로 칸국제영화제를 찾은 이후 두 번째로 칸을 찾은 전종서는 “(드라마를) 찍을 때만 해도 이런 데 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다”며 “5년 전에도 어안이 병병해 정신없이 다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은 드라마 시장의 세계적 확대에 힘입어 2018년 처음 개최됐으며, 매년 칸국제영화제보다 약 한 달 앞서 열린다. 레드카

펫 대신 핑크카펫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종서와 전진규, 장률도 핑크카펫에 섰다.

현지에서 열린 상영회를 앞두고 인터뷰가 진행된 탓에 세 사람은 관객들의 반응을 아직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공항에서부터 K-콘텐츠에 대한 해외 관심을 느꼈다고 했다.

전진규는 “공항에서 나오니 제가 나왔던 작품 사진을 갖고 오셔서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순간 칸에 왔다는 걸 실감했다”며 “‘몸값’이라는 작품 자체도 좋지만, K-콘텐츠의 힘이 크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전종서 역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국 드라마의 붐이 온 것 같다”며 “해외에서는 국내와 다른 재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한국 콘텐츠가 가진 유희함을 보여 줄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만이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기술과 매력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배우로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연기를 해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 배우는 또 한국 드라마에 대해 높아진 관심만큼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장률 역시 “책임감이 더 커졌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우리 작품을 몰입해서 보고 마지막에 다 같이 박수쳐주는 순간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간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몸값”은 서로의 몸값을 두고 흥정하던 세 사람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전종서는 성매매로 유인한 남성을 장기 매매로 넘기는 연결책 박주영을, 전진규는 고등학생을 성매매하려던 노형수를, 장률은 아버지를 위해 신장을 사러 온 고극렬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외국인들 ‘문화도시 광주’ 지식 배틀

亞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퀴즈대회’ 中 라명자씨 3년 연속 최고상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외국인퀴즈대회에서 중국 흑룡강성 출신 라명자씨가 3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외국인 퀴즈대회는 지원포럼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지난 15일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45명이 참가했으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1명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상금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라명자씨는 16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 광주 서구청 산하 다문화 가정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평소 지역신문을 꼼꼼히 보고 플래카드와 배너 등을 유심히 살핀 것이 광주에 대한 상식을 높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상은 한서운(베트남), 우등(중국), 정가결(중국) 3명이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코틀란 다니엘 루빈(미국) 등 11명이 수상했다.

행사를 주최한 지원포럼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참가자가 해마다 늘고 광주에 대한 상식 수준도 높다”면서 “이들이 광주를 알림으로써 광주를 알리는 작은 창구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G연기, 물음표가 느낌표 되더라고요”

티빙 시리즈 '전쟁활동' 신현수

고3 학생들 사투 그린 SF 드라마 첫 장르물 도전...21일 파트2 공개



“보이지 않는 대상과 호흡을 맞추는 컴퓨터그래픽(CG) 연기는 처음이었어요. 초반에는 계속 ‘이게 맞아?’ 하면서 어려웠는데, 연기할수록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것 같아요.”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 (2016-2017), KBS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2017) 등에서 풋풋한 로맨스 연기를 주로 선보여온 배우 신현수가 티빙 새 오리지널 시리즈 ‘방과 후 전쟁활동’(이하 ‘전쟁활동’)에서 엄격한 소대장 이춘호로 열연을 펼치며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전쟁활동’ 파트2 공개를 앞두고 최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신현수는 “이춘호라는 캐릭터를 통해 저만 알고 있던 제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쟁활동’은 하늘을 뒤덮은 구체 모양 괴생명체의 공격으로 지구가 종말 위기에 놓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펜 대신 총을 들고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SF 드라마다.

이춘호는 성진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의 훈련을 맡은 소대장으로,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

은 따뜻한 캐릭터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신현수는 “그전까지는 ‘살인이나 죽음 등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중심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래서 실제 겪은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로맨스 연기를 주로 택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CG 연기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렵고 민망했지만, 신기하게도 나중에는 연기할 때 구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장르물의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공개되는 파트2에서 이춘호의 분량은 제한적이지만, 신현수는 파트2를 훨씬 재밌게 봤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김태희·임지연, 스릴러 투톱

ENA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 6월 중 방송

김태희와 임지연이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 호흡을 맞춘다.

지니TV는 배우 김태희, 임지연 등이 출연하는 새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을 오는 6월 중 ENA에서 방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마당이 있는 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두 여자가 수상한 남새로 인해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다.

김진영 작가가 집필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김태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사는 '주란'을 연기한다.

주란은 뒷마당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의 진실을 쫓기 시작한다.

넷플릭스의 화제작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박연진을 연기했던 임지연은 이번에는 가정 폭력 피해자 '상은' 역을 맡았다. 비루한 현실에서 탈출을 꿈꾸는 여자다.

주란의 남편이자 능력 있는 완벽주의 의사 '재호' 역에는 배우 김성오가, 상은의 남편이자 가정 폭력 피해자인 '윤범' 역에는 최재림이 나선다.

드라마 'WWW' (2019)와 '스물다섯 스물하나' (2022) 등을 만든 정지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연합뉴스



김태희

임지연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